“조선 최고 유학교육 성균관, 친일파 소굴로 변질”

심정섭 명예관장, 친일유림 유묵첩 ‘장수여묵’ 공개
일제 식민통치 등 찬양…순회강연서 일선동화 주장

조선의 유학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이 한일합방 이후 경학원으로 격하돼 친일파 소굴이 된 사실이 문서로 공개됐다.

성균관 유림들은 국권 회복에 앞장서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일제 총독부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찬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학원 설립 114주년을 맞아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씨(82·광주 북구)가 공개한 친일 유림 유묵첩 ‘장수여묵’의 제작 연대는 1920년대로 추정되며, 크기는 가로 15㎝ 세로 25㎝다.

조선 말기까지 최고 교육기관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성균관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령 제73호 경학원 규정에 따라 1911년 6월15일 경학원으로 개칭된다.

경학원으로 이름이 바뀐 뒤에는 일본 천황의 하사금으로 설립, 조선총독부 식민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감독 아래 조선인을 충량한 황국신민화로 만드는 데 유교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계절에 따라 유교 제사를 지내면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조선 13도에 감사를 파견해 식민통치를 정당화했다.

실제 1915년 경학원 함경남도 강사 이인직(1862~1916)은 순회강연에서 “조선인은 일본정신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면서 일선동화를 주장했다.

심 명예관장이 공개한 유묵첩 ‘장수여묵’의 주인공은 중추원 조사과 촉탁 장해원(1873~?), 중추원 참의·경학원 강사 심선택(1871~1943), 경학원 강사 위대원(생졸미상), 경학원 강사 지완수(생졸미상), 경학원 강사 나일봉(1871~?), 경학원 사성 박치상(1866~1918), 경학원 강사 송시헌(1878~?), 경학원 강사 정문현(1860~?), 경학원 강사 황돈수(1868~1945), 경학원 강사 한창우(생졸미상), 경학원 강사 성락현(1876~1936) 등 11명이다.

유묵첩 제호인 ‘장수어묵’은 경학원 대제학 정만조(1876~1936)가 썼다. ‘장수어묵’은 군자가 학문을 배우는데 마음이 항상 학문에 떠나지 않아 붓끝에 먹물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정만조는 1889년 문과에 급제하고 비서원승(도승지), 규장각 부제학을 역임하고, 1896년 을미사변에 연루돼 전남 진도에 유배, 1907년 풀려났다.

그는 추사 문인인 개화사상가 강위(1820~1884)에게 배운 한말의 거대유림으로, 진도 유배 기간 동양화 대가인 의제 허백련을 가르쳤다.

유묵 ‘장수어묵’에는 △대한제국 성균관 박사·중추원 참외 경학원 전남강사·1928년 쇼와천왕 즉위기념 대례장을 받은 심선택의 ‘유학자의 도리’ △대한제국 육군 대위·중추원 조사과 촉탁인 장해원의 ‘광분한 행동과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 △대한제국 법부법률기초위원·경학원 한남강사 위대원의 ‘논어 위령공편’ △경학원 사성·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박치상의 ‘관리는 군주와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경학원 충북강사 송시헌의 ‘충신독경’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경학원 강사 정문현의 ‘책을 읽고 의리를 행한 후 도를 논하면서 나라를 경영한다’ △경학원 경기강사 황돈수 ‘마음’ △다이쇼천황·쇼와천황 즉위 기념 대혜장을 받은 경학원 충북강사 한창우의 ‘도의 근본은 하늘에서 나온다’ △경학원 강사 성낙현 ‘도의 근본은 하늘에서 나온다’ 등이 담겼다.

경학원 설립 114주년을 맞아 3일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씨가 제작 연대가 1920년대로 추정되는 친일 유림 유묵첩 ‘장수여묵’을 공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심정섭 명예관장은 “유교는 공자를 시조로 하고 인의를 근본으로 하는 정치·도덕의 실천을 주장하는 것이 근본 원리인데 일제시대 경학원은 친일 일변도의 길로 매진했다”면서 “장수여묵에는 친일 인사의 궤변이 나열돼 있으며, ‘아침에 도의 진리를 들어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설파한 공자의 정신을 부정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남구, 미디어월로 ‘K-컬처’ 선보인다

‘신기술 융합콘텐츠’ 교류…몰입형 입체 영상 15편 순차 송출

광주 남구가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 장치인 백운광장 미디어월을 통해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문화 자원을 최첨단 기술로 구현한 ‘K-컬처 스퀘어 신기술 융합콘텐츠’를 선보인다.

3일 남구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K컬처 스퀘어 연관 고품질 콘텐츠이다.

K-컬처 스퀘어는 대한민국을 찾은 관광객과 국민에게 우리 문화의 힘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와 인천국제공항에 조성한 문화 체험 공간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K-컬처 스크린과 K-컬처 뮤지엄, K-컬처 어트랙션까지 각기 다른 매력의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남구는 K-컬처 스퀘어 공간에서 큰 화제를 모은 작품을 관내 주민과 광주 시민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7일부터 백운광장 미디어월을 통해 몰입형 입체 영상을 송출한다.

오는 12월까지 공개하는 작품의 수는 총 15편이다.

남구는 콘텐츠별 일정에 따라 해당 작품을 순차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며, 작품당 영상 상영 분량은 짧게는 20초에서 4분 사이다.

가장 먼저 공개하는 영상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역동적인 해상전투 현장을 체험하는 ‘승리의 바다’와 현대적으로 개조한 거북선을 타고 서울 광화문 광장의 과거·현대·미래를 체험하는 ‘타임워프, 시간을 달리다’이다.

또 토끼가 지구별을 여행하는 콘셉트로 제작된 ‘검은 토끼의 모험’ 판타지 영상과 바다 생물이 바닷속을 유영하는 모습을 4D 형태로 담은 ‘상상의 바다’도 선보인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전남 13일 만에 장마 끝… 역대 두 번째 빨라

강수량 55.7㎜·강수일 4.6일… 당분간 비 없어 무더위 지속

올해 남부 지방의 장마가 13일 만에 종료됐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 ‘제27차 날씨 프리줌(Pre Zoom)’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전남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장마가 종료된 것은 평년보다 23일 빠른 것으로, 역대 두 번째다.

장마 기간은 12~13일로, 6일에 그쳤던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짧았다. 강수일수도 4.6일에 그쳐 1973년(3.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조기 종료됐다.

강수량은 55.7㎜로 역대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1994년(26.8㎜)의 뒤를 이었다.

광주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때 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27일 광주·전남 지역에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28일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29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다.

현재 폭염은 5일째, 열대야는 3일째 이어지고 있다. 무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낮 최고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6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2.9도로 역대 1위를 경신했다. 이는 평년기온(21.5)보다 1.4도 높으며, 지난해 최고치를 찍었던 22.7도를 갈아치웠다.

광주·전남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각 0.7일, 1.0일로 각각 3위, 1위를 기록됐다. 또 19일 광주에서 발생한 열대야는 광주·전남에서 가장 빠른 열대야로 확인됐다.

6월 광주·전남 강수량은 171.4㎜로 평년(177.0㎜)과 비슷했고, 강수일수도 10.1일로 평년(10.2일)과 동일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선정

광주 북구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주·전남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평가는 전국의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해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이뤄지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한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를 지역 일자리 창출·판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지원체계 수립·우수사례 발굴, SVI(사회적가치지표) 참여실적·투명한 사회적기업을 위한 노력 등 5개 분야 12개 세부 지표로 진행됐다.

북구는 사회적기업 우수기술 인증 지원사업, 온라인·해외 판로 확장 지원,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등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들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산하 기자 goback@

‘으슬으슬’ 감기와 비슷한 여름 불청객 ‘냉방병’

최근 5년 레지오넬라증 환자 139명… 60대 이상 82%

직장인 김모씨(33)는 사람이 붐비지 않은 아침 일찍 시내버스로 출근하고 있다. 버스에 오르면 강한 에어컨 바람에 순간 기분이 좋지만 40~50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리게 된다. 운전기사에게 에어컨을 꺼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다른 승객들 눈치를 보느라 에어컨 송풍기를 잠그거나 방향을 돌린다.

최근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가동이 늘고 있어 냉방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냉방병으로 분류되는 레지오넬라증 환자는 총 139명(광주 43명·전남 9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명(광주 15명·전남 32명), 2022년 43명(광주 16명·전남 27명), 2023년 17명(광주 3명·전남 14명), 2024년 24명(광주 6명·전남 18명), 2025년 6월까지 8명(광주 3명·전남 5명)이다.

특히 레지오넬라증 환자 중 60대 이상 환자는 총 115명(82.7%)이며, 광주 33명, 전남 82명이다.

같은 기간 전국 레지오넬라증 환자는 총 1961명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383명, 2022년 415명, 2023년 476명, 2024년 452명, 2025년 6월까지 235명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광주시, 나주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화순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에 폭염경보를, 목포시, 해남군, 함평군, 신안군(흑산면 제외), 진도군, 거문도, 초도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 광산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이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계시설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처럼 무더운 날씨로 인해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로 인해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3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레지오넬라증은 냉난방 시스템, 냉각탑, 온수 시스템, 식료품점의 야채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연무기 등에서 레지오넬라의 농도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 특히 25~45도의 따뜻한 물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의 레이오넬라균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돼 감염이 발생하지만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더라도 기침,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을 보이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 1주일 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하지만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장기이식, 면역억제제 복용), 암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서는 냉각탑 청소·소독, 실내 온도 25~28도 유지하기, 2~4시간마다 5분 이상 창문 열어 환기하기 등을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를 시작한 이후 레지오넬라증 집단 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냉온수 급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증가 등으로 언제든지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냉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지금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SOCIETY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

해뜸 05:23 해짐 19:51 달뜸 14:01 달짐 00:28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광주	25~33
	목포	25~30
	여수	24~30
	순천	24~33
	구례	23~34
전남	해남	24~31
	완도	24~31
	흑산도	22~27
	고흥	23~32
	진도	24~30

목포	밀물(고)	08:17 / 21:14
	썰물(저)	01:27 / 14:04
여수	밀물(고)	02:54 / 16:26
	썰물(저)	09:20 / 22:18

심정지 50대 생명 구한 시민

만년필 ○…광주시민과 119구급대원이 산책로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월16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의 한 산책로를 걷던 5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

출동 중이던 구급대원은 신고자와 통화하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 도착 전까지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 시행 등 응급처치를 요구. 신고자의 응급처치와 119구급대의 노력으로 A씨는 맥박과 자발 호흡 회복에 성공.

이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의식을 되찾고, 치료를 받은 후 건강하게 퇴원.

현장에 출동한 김나리 소방위는 “신고자가 망설이지 않고 가슴 압박을 시행해 준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고 전해.

이산하 기자 goback@